

TV 3월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채널A	KBS1	KBS2	MBC	KBC/SBS
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(재)	00 KBS 뉴스광장	00 굿모닝 대한민국 1~2부	00 MBC 뉴스투데이 1~2부	00 모닝와이드 1~2부
7 30 채널A 아침뉴스	50 인간극장		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<잘났어 정말>	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
8 10 제도난마	25 아침미당	00 KBS 아침 뉴스타임	30 생활송 오늘 아침	30 아침연속극 <두 여자의 방>
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	30 KBS 뉴스	00 TV 소설 <은희> 40 수목드라마 비밀 스페셜	30 MBC 생활뉴스 55 제4345주년 개천절 경축식 30 라디오스타 스페셜	10 월화드라마 <수상한 가정부(재)>
10 50 시사 특급	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별장 자전거(재)		50 무한도전 무도 가요제 스페셜	
11 50 뉴스 와이드	00 어둠당당 55 바른말 고운말(재)			30 SBS 뉴스 40 드라마스페셜 <주군의 태양(재)>
12	00 KBS 뉴스 10 KBS 파노라마			
1 00 그때 그 사람(재)	00 KBS 걸작선 <학교 2013(재)>	10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페셜	40 MBC 뉴스 50 MBC 스포츠 2013프로야구 <KIA: 두산>	
2 10 토티링평	00 KBS 뉴스 10 한국재발견			00 주말극장 <열애(재)>
3 20 직언직설	00 문화책잡기 20 생로병사의 비밀	50 추석기획 해피 투게더 야간매점 스페셜		00 SBS 뉴스 10 KBC 특별기획 <하늘에서 본 남도(재)> 40 2013 무인항토겟별축제기념 KBC축하쇼
4 30 제도난마	10 특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김제지평선 축제		25 오로라 공주(재)	
5	00 KBS 뉴스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	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		05 세상발견 유레카
6 00 뉴스 현장	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	10 생생 정보통 50 2013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	10 MBC 뉴스 20 도전! 발명왕	
7 20 웰컴 투 돈월드(재)	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	50 일일드라마 <부비반지>	15 일일연속극 <오로라 공주> 55 MBC 뉴스데스크	10 시사터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<웃남이 주의보>
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	25 일일연속극 <지성이면 감천>	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엄마가 있는 풍경 <마미도>	55 MBC 특별기획 <제왕의 딸 수백향>	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 이면이야기
9 40 채널A 종합뉴스	00 KBS 뉴스9		30 킬투의 베리나쇼	
10	00 KBS 파노라마 50 2013 ABU 국제공동제작 아시아 청년의 미래	00 수목드라마 <비밀>	00 드라마 페스티벌 <불온>	00 드라마스페셜 <주군의 태양>
11 00 웰컴 투 시월드	30 KBS 뉴스라인	20 해피 투게더	20 스토리쇼 <화수분>	20 자기가 <백년손님>
12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(재) ①:20 이영민 PD의 먹거리 X파일(재)	00 KBS 글로벌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:00 KBS 뉴스 10 KBS 걸작선다큐멘터리	40 세상의 모든 다큐 <일더듬이 왕 조지 6세>	40 MBC 뉴스24 ①:00 스포츠 다이아리 10 특집 다큐멘터리	40 나이트라인 ①:10 풋볼 매거진 골!

‘왕가네 식구들’ 왕대박

난해한 캐릭터 불구하고 10회만에 시청률 30% 돌파

“제가 왜 (엄마한테서)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어요.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작가님도 얘길 안 해주시고, 모르고 (연기를) 하러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.”

KBS 주말드라마 ‘왕가네 식구들’에서 둘째 딸 ‘호박’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이태란은 2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고충을 털어냈다.

10회까지 방송된 이 드라마에서 엄마 ‘양금’(김해숙 분)은 큰딸 ‘수박’(오현경)과 둘째 딸 ‘호박’을 삼하게 차별한다. 큰 딸이 부자 남편을 만나 엄마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반면, 둘째 딸은 능력 없고 철없는 남편을 만나 집에 도움을 안 준다는 이유다.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시청자들의 인성을 사는 상황.

이에 관해 배우들은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아직은 그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.

“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엄

맘인데, 이 역할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매화 올려야 하고요. (극중) 엄마랑 휴전 상태인데, 이제 좀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. (웃음).”

엄마가 편애하는 큰딸 수박 역의 오현경 역시 연기가 힘들다고 했다.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.

“수박이의 과거나 엄마가 호박이한테 왜 그러는지 (대본에) 안 나와서 우리도 갑갑해요. 하지만 현실에서 있는 일인데 둘째 딸 ‘호박’을 삼하게 차별한다. 큰 딸이 부자 남편을 만나 엄마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반면, 둘째 딸은 능력 없고 철없는 남편을 만나 집에 도움을 안 준다는 이유다.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시청자들의 인성을 사는 상황.”

이에 관해 배우들은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아직은 그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.

“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엄

선까지 가야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,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예민해지고 있어요. 진짜 수박이가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철없고 이기적인 수박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욕을 더 많이 먹을 거고요.(웃음).”

하지만 그는 수박이가 일반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.

“에피소드로 더 과거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, 수박에게는 좋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리라 생각합니다. 지금은 수박이의 철없는 모습에 흠뻑 빠져보고요.”

수박이의 남편으로 사업이 망한데다 속삭이는 아내와 함께 처가살이를 들어간 ‘고민중’ 역의 조성하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캐릭터를 맡았다고 토로했다.

그는 또 택배 사업을 시작한 고민중이 직접 짐을 들고 뛰는 연기를 하다 보니 살이 많이 빠졌다고 전했다.

‘왕가네 식구들’은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의 기행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10회 만에 시청률 30%의 벽을 넘어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. /연합뉴스



‘진짜 사나이’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 2위 ‘깡충’

MBC 예능 프로그램 ‘일밤-진짜 사나이’(이하 ‘진짜 사나이’)가 한국결합이 여론 조사한 ‘9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’ 순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.

2월 한국결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묻은 결과(2개까지 자유응답) MBC ‘진짜 사나이’가 7.2%의 지지로 2위에 올랐다. 이는 전월에 비해 3.3%포인트 상승, 순위로는 4계단이나 오른 것이다.

이 프로그램은 특히 30대와 40대 남성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MBC ‘무한도전’은 10.0%의 지지로 7개월 연속 1위를 고수했다.

‘무한도전’과 ‘진짜 사나이’에 이어 KBS 월화드라마 ‘굿 닥터’가 6.1%의 지지로 3위에 올랐다. 전월에 비해 두 계단 상승한 순위로, 드라마 중에는 단연 1위다. 40대 여성들의 지지도가 높았다.

이어 ‘진짜 사나이’와 함께 ‘일밤’의 다른 코너인 ‘아빠! 어디가?’가 5.7%의 지지로 4위에 올랐다. ‘아빠! 어디가?’는 8월 조사에서 3위였지만, 9월에는 ‘진짜 사나이’에 밀렸다.

SBS 수목드라마 ‘주군의 태양’도 5.2% 지

지를 받으며 전월 8위에서 9월 5위로 뛰어 올랐다.

이밖에 SBS 예능 ‘런닝맨’(4.7%), KBS 일일드라마 ‘지성이면 감천’(3.9%), KBS ‘개그콘서트’(3.4%), MBC 일일드라마 ‘오로라공주’(3.1%), JTBC ‘발전’(2.9%)이 10위 안에 들었다.

‘개그콘서트’는 전월보다 6계단이나 뛰어 올라 10위권에 재진입했고 ‘오로라공주’는 전월보다 5계단 내려앉았다.

이번 조사의 표본은 휴대전화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, 표본오차는 ±2.8%포인트(95% 신뢰수준)다. /연합뉴스

EBS	
06: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<용서>	14:30 몬스터 수확나라
07:00 곤	15:00 피터팬
07:15 마이의 모험	15:30 바두와 친구들
07:30 꼬마버스 타요	15:45 똑똑박사 에디
07:45 로보카 폴리	16:00 덩동영 유치원(재)
08:00 덩동영 유치원	16:20 아기 고릴라 동동
08:20 풍선 코끼리 발루부	16:30 코코몽2
08:35 방구대장 뽕뽕이	16:45 모야모야재
08:50 모야모야	17:00 방구대장 뽕뽕이(재)
09:05 코코몽2	17:15 꼬마버스 타요
09:20 생활의 비법	17:30 풍선 코끼리 발루부
10:00 한국기행 <담양>	17:45 로보카 폴리
10:20 명의의 건강비결	18:00 마이의 모험
10:50 최고의 요리비결	18:15 곤
11:20 세계대미기행 <술탄의 맛터키에 빠지다 4부 -천 가지의 맛과 맛, 가시안테프>	12:00 몬스터 수확나라
12:00 EBS 정오 뉴스	12:30 피터팬
12:10 연중기획 <폭력없는 학교>	13:00 바두와 친구들
13:05 지식채널e	13:20 바두와 친구들
13:10 출가온 수학 EBSMATH	13:30 꼬마버스 타요
13:20 레이의 우주 대모험	13:45 꼬마 철학자 휴고
13:30 모피와 친구들	14:00 질난 체리우스 박사님
13:45 꼬마 철학자 휴고	14:15 장난감 나라의 노디
14:00 KBS 뉴스	
14:15 장난감 나라의 노디	

EBS플러스1	
00:00 기본과 특별한 <한국사>	11:40 <화학II>
00:50 내신6강 <수학(하)>	12:30 박복의 이슬로 만나는 경제
01:40 포스 <문학I>	13:00 탐스런 <생명과학II>
02:30 <문학II>	14:00 <지구과학II>
03:20 <적분과 통계>	15:00 인터넷 수능 <문학(A)>
04:10 <기하와 벡터>	16:00 EBS N제 <생활과 윤리>
05:00 <수학II>	17:00 인터넷 수능 <듣기(B)>
05:50 탐스런 <물리I>	18:00 708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
06:40 고교특강 올림 #포스 <영어독해의 기본(1)>	19:00 <영어B형>
07:30 <Basic Grammar>	20:00 <영어A형>
08:20 탐스런 <화학I>	21:00 <영어B형>
09:10 <생명과학I>	22:00 <동아시아>
10:00 <지구과학I>	23:00 <세계사>
10:50 <물리II>	23:50 지식채널e

EBS플러스2	
07:00 청소년 상담 시험 대비 강좌	16:10 <과학 5-2>
07:30 명사의 스승	16:40 <과학 6-2>
08:20 두근두근 우리들 세상	17:10 통통가족
08:30 경비지시도 시험 대비 강좌	17:20 역사 e 뉴스
09:10 <국어I>	17:45 인형극장 옛날 옛날에
09:50 <수학I(상/하)>	18:00 특목 직업이 보인다
11:10 <도덕>	18:30 임이없이 살아보기
11:50 중학 2학년 <수학2-2>	19:00 극한직업
12:30 <과학>	19:30 원더풀 싸이언스(7)
13:10 중학 3학년 <도덕>	20:20 EBS 문화사리극 <명동 백작>
13:50 중학 개념 끝내기 <세계사>	21:20 등업산공 <역사I>
14:30 <문학>	22:00 중학 퍼펙트 체코업 <과학3-2>
15:10 초·중·고등 성취도 평가 대비 특강 <과학 3-2>	22:40 중학 3학년 <수학3-2>
15:40 <과학 4-2>	24:00 예술의 광장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	10월 3일(음 8월 29일 壬寅)
子 36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. 48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60년생 큰 오류가 보인다. 72년생 차분하게 정리한다면 순조로워진다. 84년생 가까운 이와의 인연이길 사로 연결되겠다. 행운의 숫자 : 60, 34	午 42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. 54년생 상대의 발언에는 다중의 상징성이 내포 되어 있으니라. 66년생 검토한다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. 78년생 좋은 기회란 연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. 행운의 숫자 : 36, 10
丑 37년생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. 49년생 평소 애써왔던 것이 힘이 되리라. 61년생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. 73년생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다. 85년생 계획대로라면 차질이 없겠다. 행운의 숫자 : 01, 52	未 43년생 성실하다면 성취하게 되리라. 55년생 충동적인 언행의 습관을 조절할 수 있어야겠다. 67년생 행운의 찬스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으니라. 79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커다란 원조를 받게 된다. 행운의 숫자 : 17, 54
寅 38년생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. 50년생 상대에게 부당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. 62년생 원대한 시각을 가지고 넓고 멀리 바라보아야 하니라. 74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. 행운의 숫자 : 42, 69	申 44년생 덕이 있는 이는 언제나 외롭지 않으니라. 56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탈 하리라. 68년생 절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실수하게 된다. 80년생 할 수는 있으나 탄력을 받기에 는 시일이 필요하다. 행운의 숫자 : 08, 83
卯 39년생 현대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. 51년생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. 63년생 전체의 발전을 위한 아픈 감내 해야만 하니라. 75년생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. 행운의 숫자 : 79, 47	酉 45년생 집착할 필요는 없으니라. 57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. 69년생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자. 81년생 이룰 수도 없고 저할 수도 없어서 곤경에 빠지는 모습이니라. 행운의 숫자 : 64, 37
辰 40년생 겸손과 중용의 덕목이 절실하다. 52년생 눈치 채지 못하도록 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. 64년생 평소 애써왔던 이와 조우하는 행운이 있겠다. 76년생 모순을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다. 행운의 숫자 : 27, 16	戌 46년생 용기가 필요한 때이니 큰마음을 먹어야겠다. 58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. 70년생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. 82년생 시행착오를 반복해 본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라. 행운의 숫자 : 72, 65
巳 41년생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. 53년생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좋다. 65년생 절제와 박력이 적시에 쓰여야 할 것이다. 77년생 발전의 물꼬를 트는 길사가 발생하리라. 행운의 숫자 : 89, 43	亥 47년생 위협스러움과 묘안은 공존 하니라. 59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. 71년생 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겠다. 83년생 의무는 철저한 중지를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. 행운의 숫자 : 20, 73

TV 하이라이트

터전을 지키는 야생피해방지단

극한직업(EBS·밤 10시45분)=수확을 앞둔 가을, 전국적으로 풍년이 예상되지만 정작 농민들은 시름이 깊다. 농가를 습격해 벼, 콩, 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야생동물 때문. 멧돼지, 고라니가 쓸고 간 논은 폐농 수준에 이를 정도로 속대밭이 됐고 민가를 덮친 멧돼지의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. 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바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다. 이들은 수확기, 약 80일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와 그 일대를 순찰하고 농작물을 망치는 야생동물을 포획한다. 이들은 내 가족의 터전을 지키는 사명으로 밤낮없이 출동하는데...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치열한 일상으로 들어가 본다.

1000번의 오디션, 배우 오정세

스토리쇼 화수분(MBC·밤 11시20분)=이 주에는 어떤 재미있고, 감동적인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. 총무로 섬의 1순위 영화배우 오정세. 그도 데뷔 초창기 때는 대사 한마디 없는 단역 배우였다. 단역에서 주연배우가 되기까지, 오디션만 1000번 본 배우 오정세의 파란만장 오디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본다. 화창시절 이런 선배 꼭 있다. 복학생 선배가 되어 돌아온 조정치가 후배들과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. 눈치없이 생긴 조정치 인생 최대의 굴욕도 공개된다. ‘섹시 글래머’ 김준희가 내 아내가 된다면? 완벽한 S라인의 그녀가 화끈하게 벗었다. 남편만 모르는 김준희의 은밀한 사생활은 무엇일까.

합천 지실마을의 지혜 밥상 소개

한국인의 밥상(KBS1·오후 7시30분)=천 년, 그 오랜 시간의 문이 열리고, 그 시간이 만들어 낸 옛 유산들이 차곡차곡 가을 곳간을 채우는 곳. 천년의 시간이 만들어 낸 자연의 선물, 그 비밀의 맛을 찾아 합천으로 떠나 보자. 높고 험한 산들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 덕에 팔만대장경이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은 품을 수 있었지만, 그 거친 땅에 기대어 살아야 했던 산촌 사람들의 삶은 더욱 고단했을 터. 척박한 환경을 일구어 소중한 한 끼를 만들어 내는 산촌의 다량인 마을 사람들, 유난히 빨리 찾아드는 겨울을 대비하는 지실마을의 지혜의 밥상을 만나보자. 합천에서 황강은 넉넉한 어머니의 품 같은 곳. 가을치는 고아만 먹는 것이 아니었고, 장어는 구워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데.